

HAPPY
NEW
YEAR

찬송가 199장

1.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들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후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들던 말 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2.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3.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4. 그 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찬송가 37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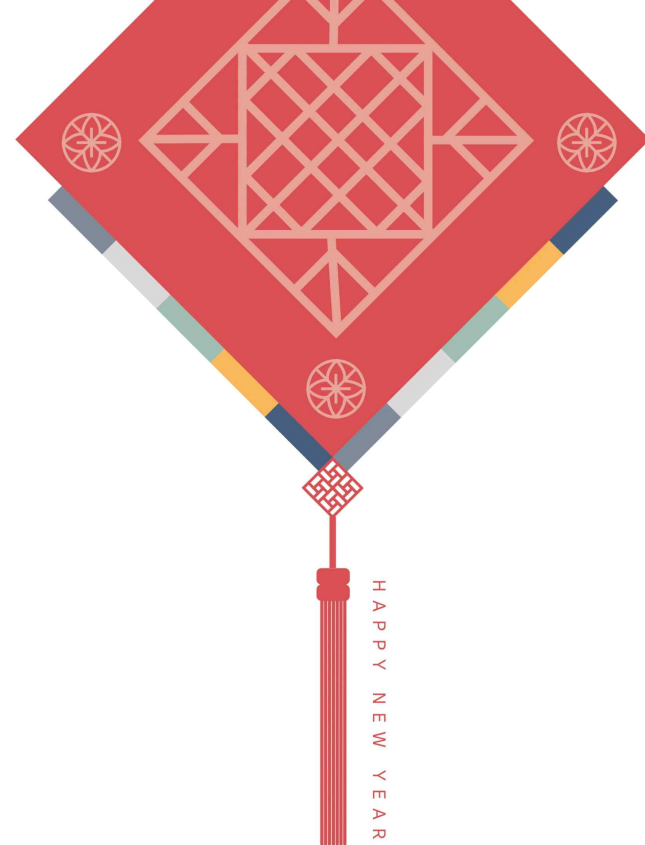
1. 주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만 따라가리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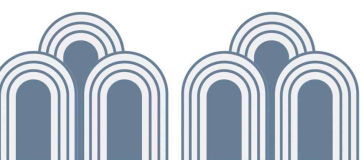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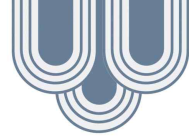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하시네



2024

설 가정예배 순서지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사도신경 -----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199장 (뒷면 참조) ----- 다 같이
기 도 ----- 말 은 이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민족 고유의 명절 설에 사랑하는 가족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가 크지만,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뜻과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에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 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와 믿음의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족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 여호수아 1:7~9 ----- 다 같이
말 씬 ----- 우리가 해야 할 것 ----- 말 은 이
찬 송 ----- 찬송가 370장 (뒷면 참조) ----- 다 같이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본문 / 여호수아 1:7~9

-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설교 / 우리가 해야 할 것(여호수아 1:7~9)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신실하다’는 의미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인데,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구원사역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애굽의 억압과 압제 속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한 40년의 광야 시기를 거쳐 인도하시고, 이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습과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해야 할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 7절.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중 어떤 것은 지키고, 안 지키고 가 아닌 온전함으로 다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7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 8절.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입으로 소리 내어 읽음과 함께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할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인도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식적으로 말씀의 내용만을 알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하는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셋째, ‘두려움이 아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세광고회 모든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